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관원



저자: Edward Hughes

삽화: Byron Unger; Lazarus

각색: M. Maillot; Sarah S.

번역: Koh Woon Choi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07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 않는 것을 발견하셨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팔고 돈으로 바꾸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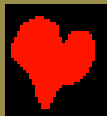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예수께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의 집을 사랑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권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강요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그 성전은 사십육 년에 걸쳐 완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였다. 성전과 같이, 예수님의 몸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아셨다.





늦은 저녁, 한 명의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많은 기적들을 통해
유대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로 서 온
사람임을 알았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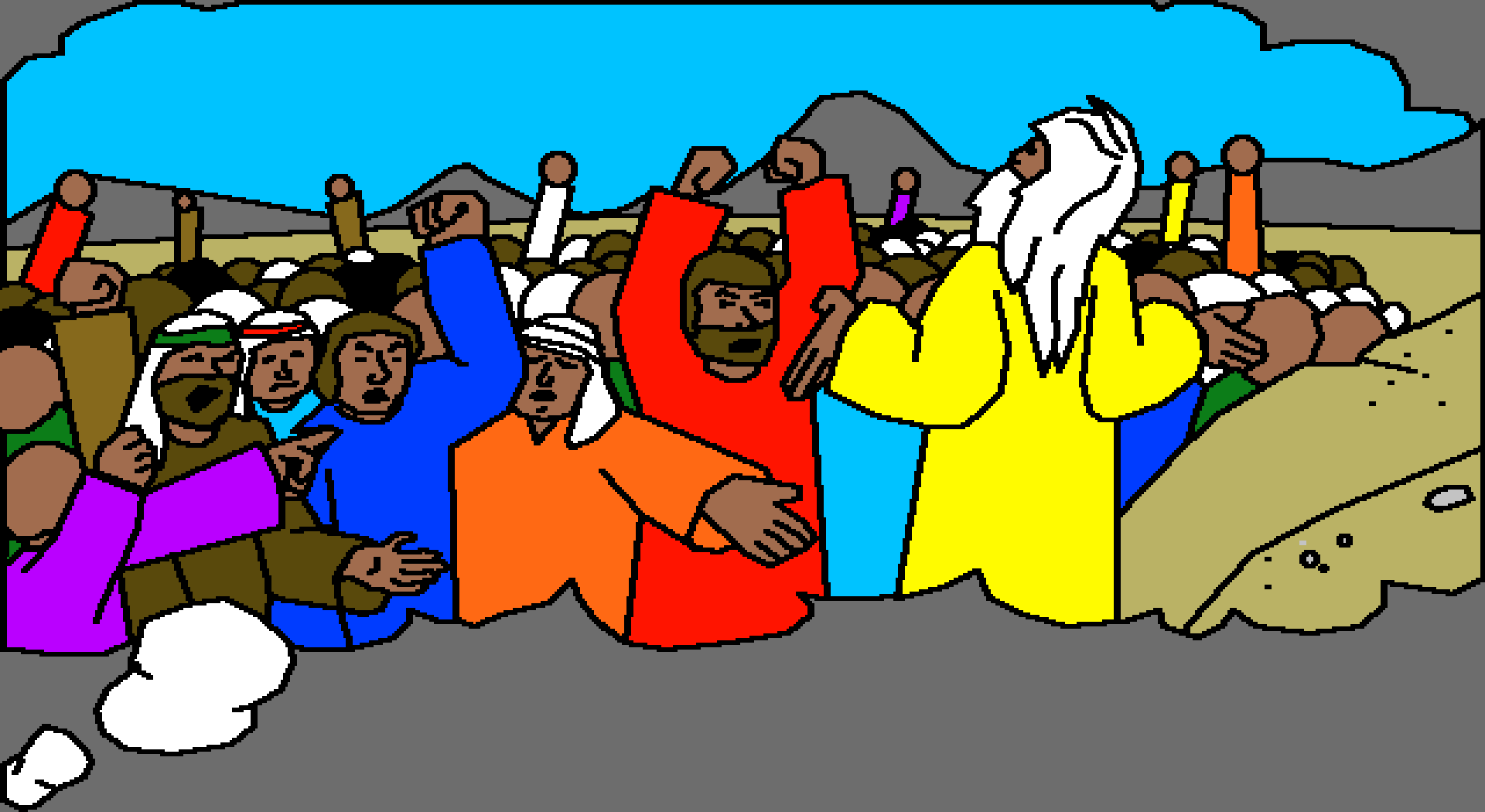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은 꼭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다 큰
어른이 다시 아기로
돌아간단 말인가? 게다가,
그는 경건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것은 성령으로 난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도다. 사람들은 바람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으니라. 그들은 오직 바람이 무엇을 하는지만을 보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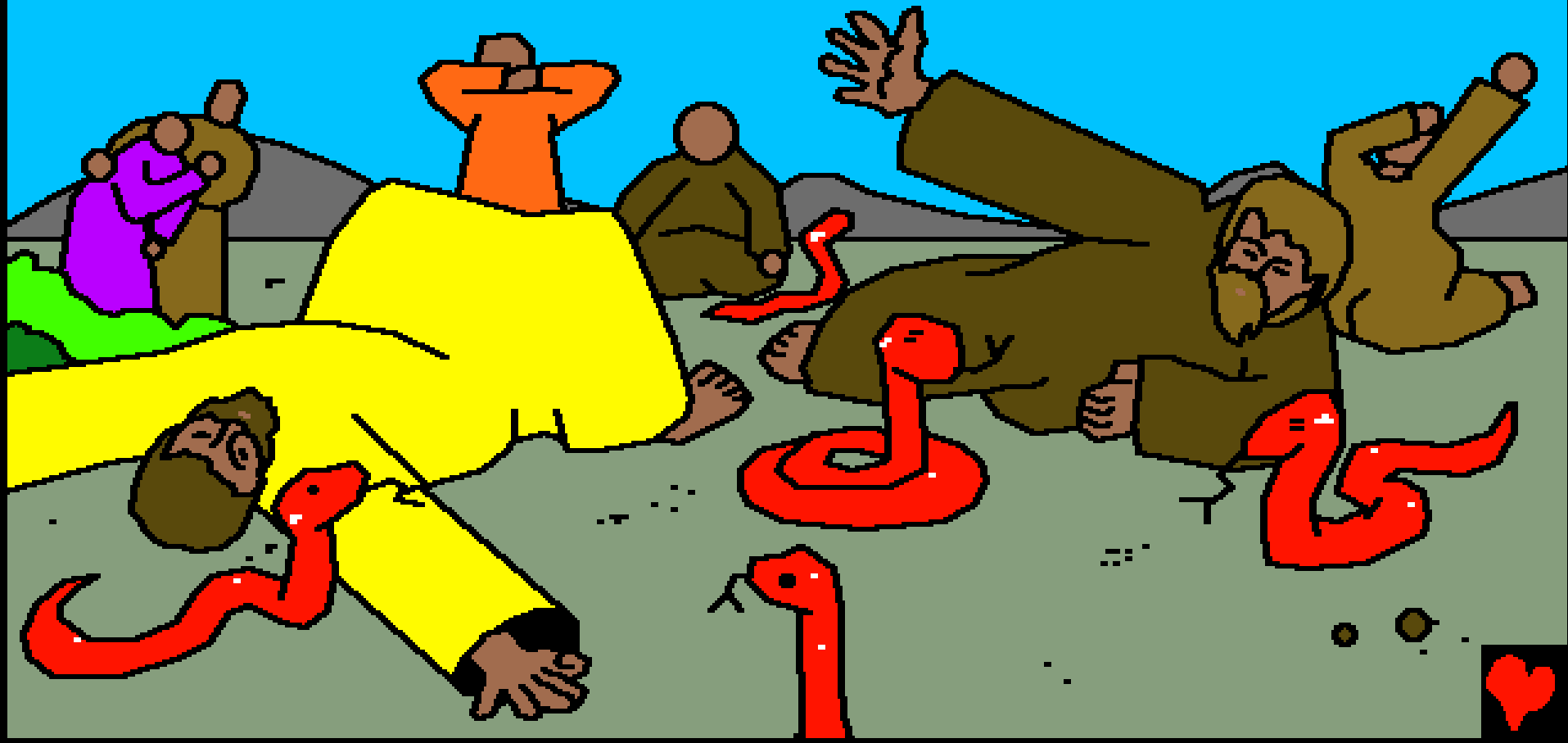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오래 전 모세에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셨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빵이 싫습니다," 그들이 불평했었다.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죽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들을 저희에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 백성들이 애원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뱀들을 거두어 가지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위에 달으라고 하셨다.
"물린 자 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의 아들이 늦밤 처럼
높여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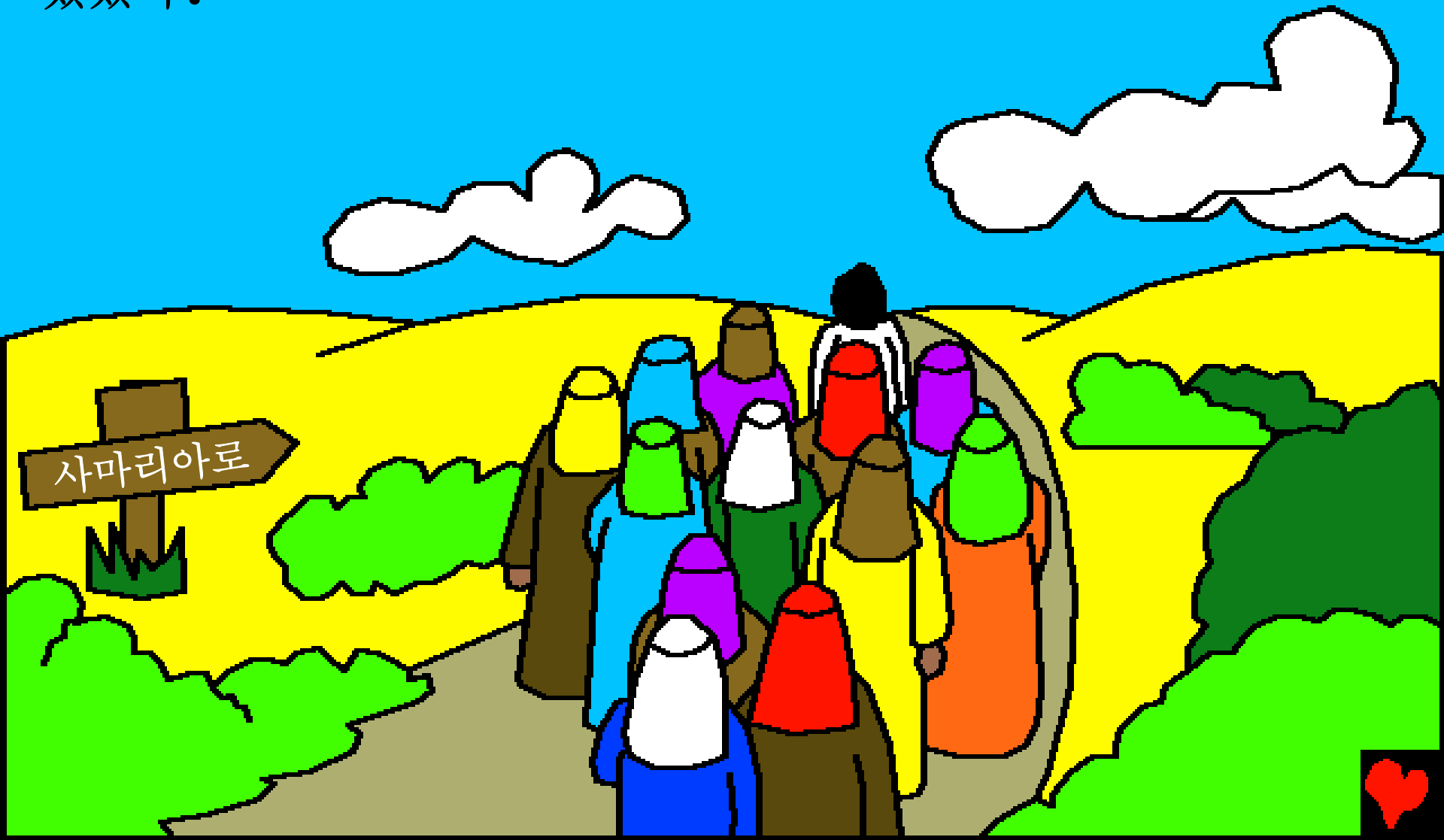
곧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뜻이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 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묻는 것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동쪽으로 발길을 옮기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접할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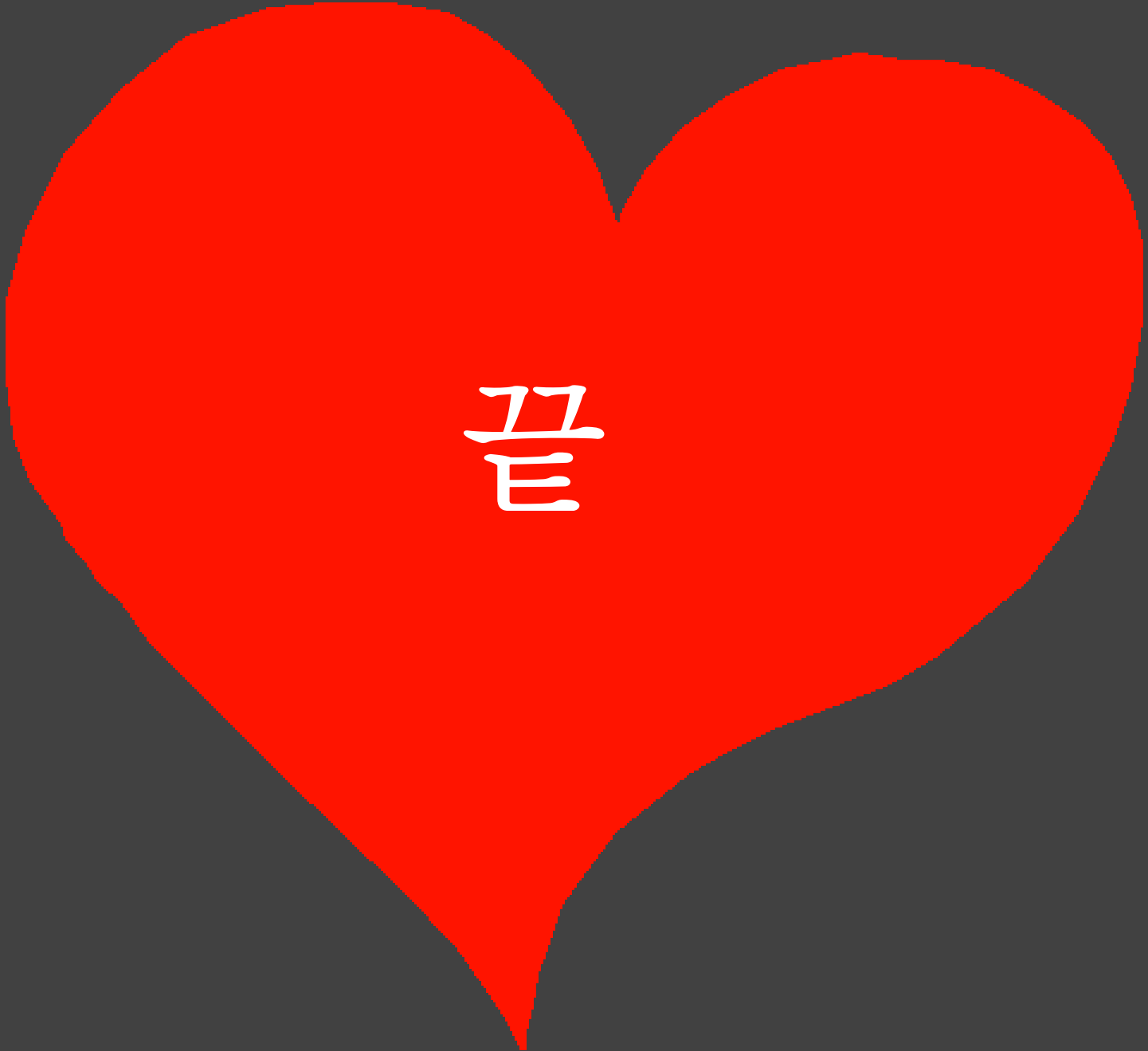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관원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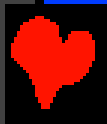
요한복음 2-3, 민수기 21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